

# 국내 u-City의 유형별 접근 방안 및 시사점

\*윤원정, \*\*조향숙

ETRI 네트워크경제연구팀

\*ywonjung@etri.re.kr, \*\*chosuk3@etri.re.kr

## Some Implications on the Strategy by u-City Construction Type in Korea

\*Won-Jeong Yoon, \*\*Hyang-Sook Cho

ETRI Network Economy Research Team

### 요 약

최근 지자체에서는 유비쿼터스 정보화 시대에 발 맞추어 u-City 도시구현을 위해 계획을 수립하거나, 추진 중에 있다. 그러나 실행의지만 있을 뿐 구체적인 실행 계획 및 예산확보가 없이 계획만 세우고 있는 실정이며, 동일한 u-City 구현에 있어서도 추진하고자 하는 전략 및 유형이 매우 다양하고 표준화된 통합모델이 없는 상황이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u-City에 대한 정의 및 국내 u-City 동향에 대해서 살펴보고, u-City를 추진하는 유형을 추진범위, 구축목적, 개발주체, 정부주도의 4 가지 관점에서 도시 별로 유형화 하였으며, 분류된 유형체계 내에서 u-City의 특징 및 추진 방향을 도출함으로써 u-City 구현 및 활성화를 위한 기초자료 및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 I. 서론

오늘날 정보화는 더 이상 선택이 아닌 필수이며, 정보화 수준이 그 조직의 대외 경쟁력을 대변하고 있다. 이러한 정보화는 시대적 패러다임과 접목되어, 단독형 정보화, 네트워크 정보화, 광대역 정보화를 거쳐 유비쿼터스 정보화로 진화되고 있다.

첨단 정보기술과 유비쿼터스 IT의 발전은 건설, 가전, 문화와의 컨버전스를 통하여 혁신적 개념의 신도시를 탄생시켰으며, 국내에서는 u-City를 통하여 이를 실현시킬 것으로 전망된다. u-City는 도시 기능을 효율적으로 구현하는 동시에, 지역 특성에 부합되는 차별화된 산업 전략을 통하여 경제성을 추구하고 있다. 이에 거주민의 도시생활의 편의와 삶의 질을 향상시킬 것으로 기대되는 국내 유비쿼터스 IT의 대표적인 비즈니스 모델로 부각되고 있다.

2006년 현재 지자체에서는 유비쿼터스 정보화 시대에 발맞추어 u-City의 도시구현을 위해 계획을 수립하거나, 추진 중에 있다. 그러나 동일한 u-City를 구현하는데 있어서 현실에서 추진하는 실태는 매우 다양하며, 동일되어 있지 않다. 예를 들어 u-City 구현을 목표로 하는 기업도시의 경우 관광레저형, 지식기반형, 산업교역형, 혁신거점형 등 다양한 특성에 의하여 분류될 수 있으며, 이를 추진하는 형태 또한 다양하게 분류될 것이다.

이에 이 연구에서는 다양한 시각에서 거론되는 지자체와 도시들의 u-City 계획 및 추진사항을 살펴보고, 도시 별로 유형화하고자 한다. 또한, 유형화된 도시별 특징 및 추진 방향을 도출함으로써, u-City 구현 및 활성화를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 II. 본론

#### 1. u-City의 정의

우리나라는 현재 유무선 통합 인터넷, 모바일

컨버전스(Convergence), 무선주파수인식(RFID, Radio Frequency Identification) 등 정보(IT) 통신기술의 발전으로 새로운 미래 정보사회인 ubiquitous City로 향하고 있다.

u-City는 ubiquitous와 City의 합성어이다. Ubiquitous는 '어디에나 동시에 존재하는(Being or seeming to be every where at the same time)'이라는 사전적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이는 라틴어 ubique(신은 언제, 어디서나 존재한다)에서 유래된 용어로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 존재한다는 의미이다. Ubiquitous City 즉 u-City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 존재하는 도시라고 광의의 의미로 정의지어질 수 있다. 그러나 실제 u-City에 대한 정의는 학자나 연구자마다 조금씩 다르게 정의하고 있다.

연구자별로 약간씩 상이한 u-City의 정의를 살펴보면 몇가지 특성을 살펴볼 수 있다. 첫째, 지능화로서, 도시 인프라와 도시 기반시설 등을 유비쿼터스 환경으로 변화시킴으로서, 도시 기능의 지능화를 꾀하고 있다. 둘째, 네트워크로서 도시라는 물리적 공간을 전자적 공간으로 구현하는 기반으로 도시의 모든 사람, 사물, 컴퓨터 등을 연결하고자 한다. 셋째, 안전하고 편리한 서비스 활용을 위해 이를 전체적으로 조정할 통합센터의 필요성이 대두되며, 서비스는 실제 도시의 기능을 전자적 공간에서 그대로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 구현을 특징으로 한다.

u-City가 지향하는 바를 살펴보면, 실시간으로 정보의 취득과 활동이 가능한 Anytime, 공간 장소에 국한되지 않고 자유로운 상태를 실현하는 Anywhere, 어디에서든지 네트워크에 접속할 수 있는 환경인 Anynetwork, 사람이 휴대하는 모든 기기에 시공자재 기술을 장착하는 Anydevice, 언제 어디서나 원하는 상품과 서비스를 제공하는 Anyservice를 지향하고 있는 21C 정보화 도시이다.

#### 2. 국내 u-City 구축 동향

국내 u-City 구축 동향은 각 도시별 지자체에서